

韓國應急救助學會誌 第 16 卷 第 3 號, 91 ~ 102 (2012. 12)  
 Korean J Emerg Med Ser Vol. 16, No. 3, 91 ~ 102 (2012. 12)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 응급구조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길순<sup>1\*</sup> · 이창희<sup>2</sup>

<sup>1</sup>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조교수, <sup>2</sup>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 Effect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aramedic students

Gil-Soon Choi<sup>1\*</sup> · Chang-Hee Lee<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 Kang College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Namseoul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209 paramedic students attending two colleges in G Metropolitan City and provide the basic material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7 to 12, 2011 and SEI Form B made by Coopersm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Baker and Siryk,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Kim were adopted and revised.

**Result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gend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stee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graders difference, but there was no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aramedic students was academic adjustment, followed the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Conclusion** : For the effe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guidance methods and programs that

접수일 : 2012년 10월 30일    수정일 : 201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 Corresponding Author : Gil-Soon Choi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 Kang College University, 160 Dongmun-ro, Bukgu,  
 Gwangju 500-714, Republic of Korea

Tel : +82-62-520-2295    Fax : +82-62-520-2527    E-mail: cgs7771@naver.com

induce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to be available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gender and grade.

**Key Words** :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amedic stud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생의 발달과정에서 청년후기에 속하는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1]. 이러한 진로 결정과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취미, 전공 등을 고려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진로탐색과 결정, 실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순환적인 것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국가의 협동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인지하고 학교 내에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부서들을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

국가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통해 대학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2]. 그러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실제로 각 대학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집단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해석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면접이나 이력서 작성 등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 이처럼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발달과업 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2,4].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5,6],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데 반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표현능력이나 자기 확신 등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인 기술 등이 높게 나타난다[5]. 또한 진로선택과 결정, 실행에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동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되지 못하는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7,8].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가 결정된 후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9,10],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성인기의 시작이자 준비기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가치관과 실행력을 겸비한 즉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문제와 더불어 학업과 대인관계, 진로문제 등에 고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1].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성적과 취업이 잘된다는 주위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를 낳게 되고 낮은 성취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입대나 휴학 등을 이유로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로

지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과 이송단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응급구조(학)과는 1995년 11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39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졸업 후 한정된 분야로 취업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배출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의 문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과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진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 파악 노력과 학교생활적응 및 자신에 대한 존중감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위한 준비단계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2개 대학 응급구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학생 209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2011년 09월 05일 각 학년별 3명씩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호한 문항 내용은 응급구조과 교수 2인, 인문사회계열 교수 2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09월 07일부터 09월 12일까지 본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4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성별과 학년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25문항, 대학생활적응 25문항, 진로준비행동 18문항을 포함한 총 7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6]가 제작한 SEI Form B로 Cho[13]가 사용한 도구를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정문항(1, 2, 3, 6, 7, 9, 11, 12, 13, 15, 16, 17, 18, 21, 22, 23)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부호화 하였다. 그리고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ho[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9였다.

#### 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1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질문지(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실에서 번안한 것으로 도구 개발 당시 총 67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Han[15]이 25문항 5요인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부호화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Han[15]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하부요인은 학업적 적응이 .65, 사회적 적응 .69, 정서적 적응 .76, 신체적 적응 .61, 대학에 대한 애착이 .69였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하부요인은 학업적 적응이 .62, 사회적 적응 .65, 정서적 적응 .76, 신체적 적응 .54, 대학에 대한 애착이 .62였다.

#### 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Kim[4]이 개발하고 Cho[13]가 사용한 도구를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성별과 학년별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2)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아존중감( $t=2.239, p=.026$ )과 대학생활적응( $t=2.724, p=.007$ ), 진로준비행동( $t=1.693, p=.092$ )의 평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동일한 점수를 보인 학문적 적응( $t=-.002, p=.998$ )을 제외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사회적 적응( $t=2.504, p=.013$ )과 정서적 적응( $t=3.191, p=.002$ ), 신체적 적응( $t=3.030, p=.003$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 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 $F=4.142, p=.017$ )과 대학생활적응( $F=1.227, p=.295$ ), 진로준비행동( $F=32.637, p=.000$ )의 평균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높아

Table 1.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Male(n=129)		Female(n=75)		t	p
	M	SD	M	SD		
Self-Esteem	3.51	.43	3.37	.47	2.239	.026
Academic adjustment	3.12	.56	3.12	.54	-0.002	.998
Social adjustment	3.65	.63	3.43	.56	2.504	.013
Emotional adjustment	3.58	.73	3.24	.79	3.191	.002
Physical adjustment	3.37	.59	3.11	.56	3.030	.003
College attachment	3.65	.66	3.53	.63	1.280	.202
Adjustment to College Life	3.48	.49	3.29	.45	2.724	.00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19	.75	3.00	.83	1.693	.092

Table 2.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rade

Variables	1st(n=70) <sup>a</sup>		2nd(n=68) <sup>b</sup>		3rd(n=66) <sup>c</sup>		F	p (Duncan)
	M	SD	M	SD	M	SD		
Self-Esteem	3.35	.46	3.47	.44	3.57	.42	4.142	.017 (a<b<c)
Academic adjustment	3.04	.52	3.02	.50	3.31	.60	6.037	.003 (a, b<c)
Social adjustment	3.47	.63	3.58	.64	3.67	.56	1.933	.147
Emotional adjustment	3.40	.77	3.52	.86	3.44	.67	0.415	.661
Physical adjustment	3.30	.56	3.22	.67	3.31	.53	0.499	.608
College attachment	3.52	.61	3.66	.69	3.64	.65	0.902	.407
Adjustment to College Life	3.35	.45	3.40	.52	3.48	.48	1.227	.29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76	.54	2.95	.67	3.67	.83	32.637	.000 (a, b<c)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b	c	d	e	f	g	h
a	1							
b	.640 <sup>†</sup>	1						
c	.426 <sup>†</sup>	.652 <sup>†</sup>	1					
d	.544 <sup>†</sup>	.745 <sup>†</sup>	.334 <sup>†</sup>	1				
e	.525 <sup>†</sup>	.836 <sup>†</sup>	.390 <sup>†</sup>	.502 <sup>†</sup>	1			
f	.412 <sup>†</sup>	.752 <sup>†</sup>	.416 <sup>†</sup>	.398 <sup>†</sup>	.630 <sup>†</sup>	1		
g	.513 <sup>†</sup>	.795 <sup>†</sup>	.424 <sup>†</sup>	.597 <sup>†</sup>	.556 <sup>†</sup>	.421 <sup>†</sup>	1	
h	.256 <sup>†</sup>	.250 <sup>†</sup>	.281 <sup>†</sup>	.251 <sup>†</sup>	.057	.190 <sup>*</sup>	.217 <sup>*</sup>	1

\*  $p < .01$ , <sup>†</sup>  $p < .001$

a: Self-Esteem, b: Adjustment to College Life, c: Academic adjustment, d: Social adjustment  
e: Emotional adjustment, f: Physical adjustment, g: College attachment, 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졌으나,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uncan 사후검정 결과 자아존중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요인인 학문적 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과 2학년보다 3학년의 학문적 적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고 있었다.

### 3.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r=.640$ ,  $p=.000$ ), 진로준비행동( $r=.256$ ,  $p=.000$ )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412\sim.544$ ,  $p=.000\sim.002$ ).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서적 적응을

Table 4. Effects of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Beta	t	p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Academic adjustment	.376	.103	.265	3.635	.000	.079	.074
Social adjustment	.319	.100	.248	-2.149	.002	.107	.098
Emotional adjustment	-.175	.081	-.171	3.199	.033	.127	.114

제외한 요인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190 \sim .281, p = .000 \sim .007$ ),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에 있는 요인은 학문적 적응( $r = .281, p = .000$ )이었다.

#### 4.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 = 6.745, p = .000$ ),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619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529~.584), VIF값이 10보다 작으므로(1.712~1.891)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적응( $B = .376, p = .000$ )이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적응( $B = .319, p = .295$ )과 정서적 적응( $B = -.175, p = .295$ )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은 12.7%였다.

## VI. 고찰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

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학역량 지표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취업률 향상과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진로지도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중부권의 대학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을 성별에 따라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Back[14]와 Lee[10],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비교한 Chae와 Choi[1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강원지역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제와 지역, 대상자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차후 대상지역과 학제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2학년 보다는 3학년에게서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신입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Back[14]와 Lee[10],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비교한 Chae와 Choi[1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 것이다.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Choi[19]의 연구에서 전공 선택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60%이상의 학생이 학문적 흥미 및 적성보다는 수능성적과 취업전망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세대의 행동유

형과 의식의 특성을 조사한 Jeong[20]은 대학입학 시 본인의 의사나 흥미에 관계없이 수능성적이나 취업전망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 현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21]. 이러한 결과는 곧 자아존중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Lee[18]는 신입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학과 부모,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학년에서는 3학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관대한 사회 통념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고,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신입생 보다는 많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여학생과 신입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에서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적응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전북지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ou[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적응수준을 보여져나[14],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Han[2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이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남·여 간의 신체적 특성과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내·외부적 환

경에서 응급구조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려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적응력을 높이는 진로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부요인에서는 학문적 적응에서 1학년과 2학년보다는 3학년에게서 평균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Lee[24]와 You[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학문적 적응에서 1, 2학년과 달리 3학년에게서 평균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적인 적응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과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으로[4,21],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남·여학생 간의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한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임상현장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비슷한 지역의 대상자를 계열별로 연구한 You[10]의 연구에서 공업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건·간호계열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2학년 보다는 3학년에게서 월등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은 높았고[25],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보



다 졸업을 앞둔 학년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는 Kim[4], You[10], Kim과 Kim[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졸업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로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을 덜 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3학년의 경우는 취업의 문턱에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진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나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한 대학생활은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둔 상황이 되어서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만이 아니라 신입생 초기부터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도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과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하위요인 즉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Park [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대학생활적응 정도나 우울증, 기타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Mooney 등[26]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취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8]. 또한 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과 하위요인에 관련성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

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연구한 Lee[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활적응 및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Kim과 Kim[28]의 연구와 학문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은 양의 상관관계를 정서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Kim 등[2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 일치한 것이다. Kim[4]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 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인지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행위적인 측면의 준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 시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의 지도 보다는 실제 행동의 변화를 통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는 지도를 대학생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진로지

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 적응이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적응 순이었다. 동일한 변인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는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기평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학업적 적응과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장성 요인들과 관련된 사회적 적응 그리고 일반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즉 인지적이고 정서적측면의 적응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결정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고려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광역시 2개 대학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였고, Coopersmith [5]가 제작한 SEI Form B와 Baker와 Siryk[1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Kim[4]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204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t-test, ANOVA, 상관관

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자아존중감( $t=2.239, p=.026$ )과 대학생활적응( $t=2.724, p=.007$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진로준비행동( $t=1.693, p=.026$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사회적 적응( $t=2.504, p=.013$ )과 정서적적응( $t=3.191, p=.002$ ), 신체적적응( $t=3.030, p=.003$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자아존중감( $F=4.142, p=.017$ )과 진로준비행동( $F=1.227, p=.295$ )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생활적응( $F=32.637, p=.000$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56, p=.000$ ).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서적적응을 제외한 요인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190\sim.281, p=.000\sim.007$ ),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요인은 학문적 적응( $r=.281, p=.000$ )이었다.
- 4)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적응( $B=.376, p=.000$ )이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적응( $B=.319, p=.295$ )과 정서적적응( $B=-.175, p=.295$ )이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취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및 정서적 적응을 유도하는 진로지도 방안과 프로그램들이 성별과 학년의 특성이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G광역시 일부 응급구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상자와 변인을 확대한 후속연구와 반복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Dayton CW.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 Couns Psychol* 1981;28(4):321-33.
2. Kim EJ, Kim JH. Development of Career Preparation Type Inventory for Korean College Students(K-CPT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22(3):733-52.
3. Go JS, Jyung C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career services in univers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6;38(4):141-60.
4. Kim B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Seoul, Korea.
5.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67. 283.
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26.
7. Korman AK. Selt-esteem Variable in Vocational Choice. *J Appl Psychol* 1996; 50(6):479-86.
8. Miller SR, Schloss PJ. Career-Vocational education for Handicapped youth. Aspen Systems Corp. 1982. 347.
9. Park EM. Relationship of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Seoul, Korea.
10. You HJ. College lif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04, Chonbuk, Korea.
11. Lee YJ.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2, Seoul, Korea.
12. Park SM.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1;15(1):65-78.
13. Cho MH. The effe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the adolescent's self-esteem, college lif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7, Seoul, Korea.
14.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 Psychol* 1989;31: 179-89.
15. Han CH. The consequences caused my par-

- participation in sports club activities to university student's social ability and adjustment with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07, Hwaseong, Korea.
16. Lea EK.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1, Seoul, Korea.
  17. Chae MJ, Choi GS. Comparison between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1;16(1):53-63.
  18. Lee MK.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2009, Wonju, Korea.
  19. Choi GS. The student life survey due to the gender of Dongkang college students. A collection of learned papers of Dongkang college 2010, 33.
  20. Jeong JG. College education, a new generation of patterns of behavior and consciousness, student affairs workshops. College Education Council 2001.
  21. Jang BS, Choi YL, Lee J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aturity of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0;40(1): 57-67.
  22. Shin JY. Rela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Seoul, Korea.
  23. Han HJ. Th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family cohe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94;12(2):187-94.
  24. Lee SJ.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1;25(2):235-53.
  25. Back OK.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self-esteem on indec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0, Seoul, Korea.
  26. Mooney SP, Sherman MF, Presto CT. Academic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as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J Couns Develop* 1991; 69(5):445-8.
  27. Lee SY.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undergradu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Seoul, Korea.
  28. Kim GH, Kim B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 311-33.
  29. Kim JH, Han KL, Kim KS, Kim W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student majoring in dance goal to accomplis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011;24(3):49-66.